

# 선수행·정신치료 키워드는 ‘무심과 무념’

## 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 요지

“무심(無心)과 무념(無念), 다시 말해 허 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도(道)와 합일되는 선수행의 요체이자 이 시대 정신치료의 핵심입니다.”

5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회에서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참선수행의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을 통한 정신치료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종범 스님은 ‘선수행의 요체’란 논문을 통해 ‘직지인심(直指人心)’, ‘애용지물(憐愍之物)’, ‘사구(死句)와 활구(活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정신치료학 분야에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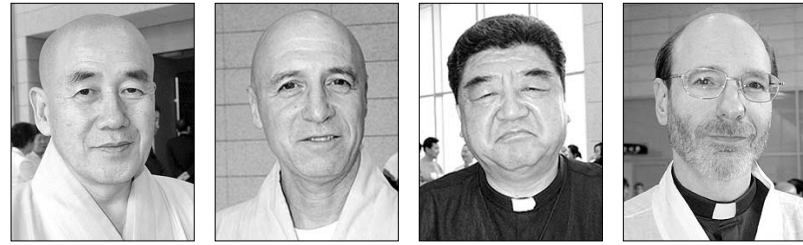
종범 스님은 “선수행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일상에서 ‘보시와 인욕’을 통한 ‘잘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슴에 무엇인가 걸려 있는 것처럼 불안한 증상인 ‘애용지물’을 끊고 안심(安心)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교수 서명원 신부는 “남종선과 정신치료학을 접목시킨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판단되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의 인식론적 비평을 포함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명원 신부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현재의 논쟁들과 성철 스님의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돈점(頓漸)논쟁과 정신치료학의 응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던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수행 및 지도경험’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대봉 스님(대전 무상사 조실)은 수행의 범위와 대상을 스님과 불자 그리고 산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인간으로 확대해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한계와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봉 스님은 “모든 인간은 고통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이성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의 원인과 끝을 깨닫게 해주는 선수행은 현대 정신치료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 종범 스님 **보시·인욕 통해 참된 마음 유지**
- 서명원 신부 **현대 인식론적 비평 빠져 아쉽다**
- 대봉 스님 **고통의 원인 일깨워 주는 점 같아**
- 박홍 신부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동병원 정창용 진료교수는 “대봉 스님의 논문은 선수행과 무이론 등 일반적인 불교적 관점과 예시로 구성돼 있어 이해도를 높인 측면은 탁월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수행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도 “정신과 의사가 참된 선수행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리(선수행)를 수용할 바탕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입원,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 선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접목 시 선례

야 할 구체적 제반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홍 신부는 “우리나라는 종교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호모 헬리오스적 경향이 강하다”며 “종교적 진리와 정신의학술을 올바르게 융합·접목시킬 수 있을 때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치유하는 ‘좋은 처방과 명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병예회장의 ‘도정신치료의 실제 예시’ 등 북경신경정신과 김동순 원장의 ‘선수행의 실제’ 밝은신경정신과 허찬희 원장의 ‘도정신치료에서의 치료자의 태도 및 해석’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1>

## 데카르트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명언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의 과학사에서 데카르트가 왜 그렇게 많이 회자될까. 데카르트의 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양에서 17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당시 서양은 오랜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찬란한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고대 문명인 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에 의해 비롯됐다. 글자·제도·가 없는 게르만 민족은 로마의 전통과 찬란한 제도·문명·그리고 철학을 파괴했다. 그나마 이러한 중세의 암흑 의중에도 카톨릭 수도원에 의

연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다.

몇 가지 수학적 원리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듯이, 진리 또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장 명료한 진리를 찾고자 한 바탕에 바로 데카르트의 ‘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서 남는 제일 원칙으로 ‘cogito’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의 바탕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의 주위에서 인식되는 사물의 존재를 아무리 의심해도,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의심하는 나를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 cogito를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연결점으로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의 틀 내에서 수학으로 자

# 물리적 세계인 기하학·영적세계인 해석학 결합 기독교 속박서 벗어나 자연과학 발전 물꼬 터

해서 글자와 문명은 유지됐다. 불교의 사원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포교를 위한 교회와 수도를 위한 수도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회와 분리된 수도원에 의해서 오히려 문화가 유지된 것이다.

스콜라 철학의 글자락에서 ‘영혼과 물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해석 기하학을 세운 사람이다. 기하학과 해석학의 결합, 이것이 데카르트의 업적이다. 역사적으로 기하학은 현실에 대한 학문이다. 토목, 건설 등 공사에서 인류는 기하학을 이용했다. 특히 삼각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토목공사에서 높이 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해석학은 다분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학문이다. 물리적 세계의 기하학과 영적인 세계의 해석학이 한가지로 결합되는 길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 ‘불교학 리뷰’ 창간호 발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불교학 전문비평지 <불교학리뷰>(사진) 창간호를 발간했다.

연 2회 출간될 예정인 이 책은 서평과 논평, 연구사와 연구노트, 번역, 신간소개 그리고 연구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구사와 연구노트에서는 불교학의 한 분과나 중요한 과제, 불교사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 추이를 정리할 예정이며 불교학 연구동향의 가능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위원을 맡은 금강대 권만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는 불교학 연구는 문과 서적 등을 모두 습득하는 것은 전문 불교학자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불교학리뷰>를 통해 불교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창간 동기를 밝혔다.

한편 이번 창간호 연구사와 연구노트에는 동국대 김성철 교수의 ‘한국유식학연구사’와 목포대 최연식 교수의 ‘대승기신론과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 등이 각각 소개됐고 번역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연구원의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함부르크대 슈미트하우젠) 등 2편의 책이 소개됐다.

노병철 기자

## ‘종립학교 종교교육방향’ 주제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 열어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3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의 종립학교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과 교재 및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현주소와 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하는 통로역할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 주목받았다. 대회에서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가톨릭대 최영희 교수의 ‘가톨릭 학교의 지점과 종교교재’ 목원대 조은하 교수의 ‘개신교계 종립학교 종교교재 연구’ 원광대 고원국 교수의 ‘원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 ‘종교학과 문화 콘텐츠’ 학술대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강돈구)는 6월 9일과 1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특징과 개신교의 복음화 과정, 중국의 민간종교, 힌두교의 구조 등을 소재로 한 논문 28편이 발표된다.

특히 10일부터 진행되는 제4발표장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중명 교수의 ‘현대 한국예불의 구조와 의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효원 연구원의 ‘한국 관음신앙 유형-발원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민순의 교수의 ‘조선 초 조계종의 불교수도적 자의식과 종파’ 등 불교관련 논문 6편이 소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 통도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 삼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내 소재 9세기 무렵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을 보물 1471호로 지정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통도사삼층석탑은 1972년 2월12일 경남도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 관리되던 이번엔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분과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됐다.

통도사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삼층석탑으로 높이 3.9m에 기단 폭은 1.8m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석탑은 하층기단 네 면에 우주와 탱주를 생략하고 안상을 조각했다. 이런 석탑으로는 범어사 삼층석탑과 무장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다.

노병철 기자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땅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동등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 최고 품질의 악기만 생산하는 양지 국악사

- 불심, 장인정신, 전문성, 품질로 국내 최고의 제품 생산 - 저희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 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하였으며, 그곳에서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서 불자고객여러분을 찾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율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율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 장구 • 북 • 소고
- 징 • 뿔가리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 가야금(21현, 22현) • 아쟁
- 거문고 • 해금 • 양금 • 비파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 대금 • 소금 • 단소 • 나각
- 태평소 • 피리 • 통소 • 당적

◆ 악세서리 ACCESSORIES

- ◆ 소품 STAGE PROPERTIES
- 풍물보 • 상모 • 북받침 • 장고대 외 일체 기타주문제작

양지국악사 제품문의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HP:011-264-3439 www.yangjukak.com

하남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